영화 후반제작지원작 국제영화제서 선봬

'주성치와 함께라면', '폭력의 씨앗'(사진 왼쪽부터)

올 1분기 선정작
'폭력의 씨앗' 등 2편

지난해 선정된 '길'
'숨바꼭질' 등 3편

'선아의 방', '길'(사진 왼쪽부터)

전주영화제작소의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 사업'이 지역 영화영상산업에 일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은 영화제작소의 색보정, 디지털 마스터링과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등 보유시설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후반제작을 지원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의 독립영화와 영상물로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로 제작준비 중 이거나 후반작업 진행예정인 독립 중단편영화·저예산예술영화·영상 다큐멘터리 등이다.

특히 2017년 1분기 선정작 중 〈주성치와 함께라면〉, 〈폭력의 씨앗〉과 지난해 하반기 후반제작지원 사업의 선정작인 〈길〉, 〈숨바꼭질〉, 〈선아의 방〉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주말 개봉작 '일 포스티노'

'시인과 우편배달부의 우정'

한편 전주영화제작소에 4층에 위치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4월의 주말을 책임지는 주말의 명화 작품으로 20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은 〈일 포스티노〉가 개봉·상영된다.

영화는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방문한 시인 네루다와 그의 우편배달부로 고용된 어부의 아들 마리오 사이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다.

극중 주인공 마리오가 사랑에 빠진 후 시인 네루다를 찾아와 하는 대사인 "전 사랑에 빠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는 여운을 남기며 지금까지 명대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나폴리 바다의 풍광과 OST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품은 칠레의 민중시인이자 1971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 시인을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원작이다.

제16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제49회 영국 아카데미, 제68회 미국아카데미, 제8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등 유수영화제 후보에 올라 수상을 거머쥐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내달 15일까지 예술의 기쁨서 강용면 작가 개인전

강용면 작가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사물이나 현상의 이면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변신'에 골몰한다.

그는 30년 이상의 작품 활동으로 매너리즘에 빠졌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여념이 없다.

강 작가는 "예술가는 변해도 죽고 안 변해도 죽는다"며 "예술가의 행위는 그 시대의 산물이고 대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변신에 대한 그의 관점은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현상의 철학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리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질서에 대한 부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 작품이 역사원년 시리즈부터 온고지신, 현기증시리즈, 지금의 응고까지 끝임 없이 변화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번 응고시리즈는 작가가 오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진보와 보수, 갑과 을, 촛불과 태극기 등의 관계를 작가의 관점에서 불합리로 응고된 현상의 교차점을 찾기 위한 전시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3m50㎝에 달하는 형형색색 덩어리의 조형작품과 2m44㎝의 흑백의 평면작품을 대비시키고 있다.

응어리진 마음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색다른 재료를 택했다. 철골과 망으로 뼈대를 잡은 구조물의 겉면에 손으로 접착제를 덧칠해 완성한 작품은 현대인의 응고된 감정을 드러낸다.

전시는 4월 15일까지 문화공간 예술의 기쁨(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70길 35)에서 열린다. 이곳은 김남조 시인과 고 김세중 조각가가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든 조각전문 전시장이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민예술촌 '아트 테리토리' 전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올해 첫 번째로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시공간인 야외갤러리에서 '아트 테리토리' 전을 개최한다.

올해 작품전시는 개복동(예술인의 거리 일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미학적인 공간과 밝고 어두운 내면의 시간을 발견하며 연결해 가는 작업을 작품으로 구체화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으로 총 5회에 걸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아트 테리토리'의 첫 전시작은 이여운 작가의 '빌딩 산수'라는 작품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삭막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지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2달간 전시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아트 테리토리 전시회를 통해 전시되어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 테리토리'는 군산의 원도심(개복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미술, 사진 등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예술인의 거리 입구를 장식하는 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회원 모집

전북도립미술관은 미술관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술관 회원을 모집한다.

미술관에 따르면 회원은 미술관 전시행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영화상영 일정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유료전시〈아시아현대미술전2017〉관람티켓 50%할인권 2매 증정과 회원을 위한 미술감상법, 카페테리아·아트샵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회원가입은 5월 31일까지며, 미술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 및 미술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가입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광재단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박차'

신보·전은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31일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은행과의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협약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도내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국 최초로 출시되는 저금리 대출상품(연 3.98%)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해 9월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예술인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는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을 비롯한 예술활동증명 도우미 운영, 예술인패스 활용처 발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재단은 앞으로 '예술활동증명 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하면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지원사업 참여가 더 쉬워진다는 이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발급되는 '예술인패스'는 그동안 국·공립에 한정됐던 참여기관을 늘려 도내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4월 7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2층 전시실 미리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 수 있다. /정해은 기자